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

3일부터 내린 첫눈은 온 천지를 덮어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햇빛은 보기가 힘들고 원종일 구름긴 우울한 날씨에 4시면 캄캄해지는 겨울입니다. 먹을 것만 넉넉하고 집안이 따뜻한 사람들은 살기가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금년이 저무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한 해 동안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캠퍼스 정비 완료 - 2012년 한해도 신학교는 큰 축복을 받은 해입니다. 신학교에 필요한 시설인 선교관이 마련 되고 100년 된 집이 수리되어 캠퍼스 정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캠퍼스 정비의 해"로 목표를 세웠는데 주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캠퍼스가 비록 좁기는 하지만 본관과 선교관이 들어서고 옛집이 수리되어 사택으로 사용되고 사과밭 정원과 함께 그런대로 아름다운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선교관과 사택에 학장, 교무처장, 실천과장 세 가족이 상주하여 학교는 그 어느때 보다 안정되고 관리가 잘되어 감사합니다.

세 과정 운영 - 지금까지 목회자 양성과정과 목회자 재교육 과정만 운영해 왔는데 지난 10월부터 사모 학교를 개설 하여 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 캠퍼스에 활기가 넘칩니다. 목회자 양성과정에 59명, 사모학교 32명, 현역 목회자 재교육반 25명, 근 120명이 일정에 따라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훈련을 받고 있어 주님의 축복입니다. 10월에 개설한 사모학교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 시작된 과정이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모들이 바로서야 우크라이나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할 것이라는 필요에 따라 개설했습니다. 사모들이 이런 과정을 기다렸다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택 수리 - 100년 된 낡은 집을 수리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목공실과 창고로 사용할까 하다가 수리를 했는데 새집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이라 안이 따뜻하고 천정이 낮지만 사택이 또 하나 마련되어 실천과장인 홍세르게이 목사님 가족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홍목사님은 우즈벡스탄에서 살던 고려인 3세로 총신 신대원을 마치고 우즈벡스탄에서 신학교와 목회사역을 하던 분인데 전임통역으로 초청하여 한국어 강의를 러시아어로 통역하며 강의도 맡아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한국 외국어대 중문과에, 아들은 우크라이나 외국어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목회지 순회 - 시간이 되는대로 신학생들의 목회지를 순회방문하여 격려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7일(토)에는 코레스텐시에 있는 "승리교회" 창립 16주년 축하예배에 초청받아 설교하고 (홍목사 통역) 왔습니다. 그 교회에 신학생이 4명이 사역하고 있고 시문화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축하예배에 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전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유럽과 무슬렘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교회는 2003년에 러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며 이번 축하예배에 참석한 그 선교사 부부도 만나보았습니다.

선교관 사정 - 저희는 신학교로 들어와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 내린 폭설과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된 지역이 많고 기온이 내려가 동사한 사람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3일간 정전이 되어 수업하는데 어려웠으나 마침 지하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워 난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5,800을 지불하고 디젤 4톤을 구입하고나니 재정은 바닥이 났고 현재 500불 정도가 적자입니다. 연말 결산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전기로 난방을 하는 선교관은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 난방이 안되므로 저희는 본관 기숙사로 피난을 갔고 다행히 본관에 전기가 복구되어 본관에서 전기를 끌어다 선교관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선이 낡아서 눈에도 약하고 강풍에는 더 견디기 어려워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심이 안됩니다. 선교관은 전기만 있으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후임 학장 선출 - 저의 신학교 세 번째 학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저의 계획과 기도제목은 내년에 후임자가 선출되어 모든 것을 인계하고 7월에 귀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신학교는 시설이나 학사가 많이 안정되고 기반이 닦아졌습니다. 저희 내외는 건강도 약해졌고 연령으로도 내년 은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주님께서 새 학장을 세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 필리핀에서 15년, 우크라이나에서 9년으로 선교사역 24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기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또 어려움 없이 재미있는 사역을 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하여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셨고 본관을 건축하시고 또 선교관까지 건축해 주셔서 신학교 캠퍼스를 조성하셨습니다. 신실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신학교 이사, 운영위원으로, 교직원으로, 강사로 함께 섬기게 하셔서 오늘의 선지 동산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저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신 여러 교회와 개인후원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그 중에는 1983년 CCC때 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지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행복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신학교와 저희들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헌금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강건하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후 9:8**

2012. 12.

**남 성 호, 이 미 숙 선교사 드림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교
<nahm530@gmail.com>**

